

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악, 가, 무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. 우리나라 국가 무형 문화재 제 1호로 지정 됨.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됨. 매년 5월 첫째주 ‘종묘’에서 연주되고 있음.

조선시대 세종 대왕이 만들

종묘제례악의 특징

연주 절차

- 영신 : 신을 불러들임
- 전폐 : 폐백을 드림
- 진찬 : 찬을 올림
- 초현 : 첫 번째 술잔을 올림
- 아현 : 두 번째 술잔을 올림
- 종현 : 마지막 세 번째 술잔을 올림
- 칠변두 : 제사 지낸 그릇을 덮음
- 송신 : 신을 보냄
- 망료 : 축문을 태움

악

악현 : 제례 절차에 따라 등가와 현가로 나뉘어 악기를 연주

가

악자 : 역대 왕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

무

일무 : ‘보태평’과 ‘정대업’에 맞추어 주는 춤